

# 새정치 쏠라 비전제시 못하면 호남 민심 요동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정동영 탈당, 신당행 파장

### 새정치, “명분·인물 취약” 추진력엔 회의적 반응 당권 주자들 “계파갈등 때문에 탈당” 책임론 거론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국민모임’에 합류를 선언함에 따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고문의 신당행은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와 4월 보궐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당 폭발성 있나=일단,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에는 동의하나, 신당 추진을 용인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고 신당을 국민 속으로 걸어들 수 있는 인적 인프라도 약하다. 신당 창당의 필요·충분조건인 ‘명분과 인물’ 측면에서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는 4월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큰 선거가 없는 데다 20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전대 과정에서 계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낸다면 신당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전대가 계파 전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온다면 당 밖의 신당론과 신(新) 당권파에 대한 당내의 반발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원심력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 전대와 신당=정 고문의 신당 합류는 새정치연합의 전대외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질 전망이다.

당장, 비문(비 문제인) 진영은 “분열을 자초한 친노(친 노무현)의 패권주의를 막아야 한다”며 ‘반문(반 문제인) 전선’의 확산을 시도할 태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권 주자들은 신당 창당이 가시화될 경우 ‘야권분열 책임론’이 전대에서는 정 고문의 탈당은 계파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문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정 고문은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대해 ‘친노계 사당화’, ‘계파 독식’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전대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의 좌장인 문제인 의원이 당권을 장악할 경우, 비노(비 노무현)계가 신당 촉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호남 민심과 신당=신당의 미래는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무관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당이 어느 정도 명분과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된다면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통해 수권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호남 정치의 재기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호남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당분간 관망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과거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분열의 폐해를 심각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당은 현재로서는 자체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신당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오른쪽부터)·이인영·문재인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울산중화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 당권주자 3인 주말·휴일 합동연설회

### ‘鄭 탈당 책임론’ 신경전 속

### “계파청산·단합” 한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문재인·이인영·박지원(기호 순) 의원은 주말과 휴일인 10~11일 잇달 합동연설회에서 참석, 대의원과 당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11일 울산 중화체육관과 부산 벡스코에서 잇따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에 나란히 참석,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과 관련, 단결과 통합을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자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은 당내 계파주의 등이 발목을 잡았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 상임고문의 탈당에 대해 기자들에게 “바라는 만큼 우리당이 진보적이지 않다면, 당내에서 진보적 방향으로 당을 이끌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한마디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후보는 연설회에서는 탈당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은 당의 얼굴로 저를 원하고 있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후보는 연설 말머리부터 “정 상임고문이 탈당했는데,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모이는 정당이 되어야지 떠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저부터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그는 “정 상임고문이 떠난 것은 우리 내부에도 계파갈등의 고리가 너무 심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전당대회를 계기로 모이는 정당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는 “저는 당에 남아 계파 패권주의와 맞서는 더 지독한 싸움을 선택했다”고 선언한 뒤 경쟁 후보들을 겨냥, “정 상임고문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려면 분열된 계파와 지역 맹주를 넘어서야 한다”며 “문재인과 박지원을 넘어 이인영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후보들은 지난 10일 오전 제주 상공회의소와 오후 창원문성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겸 합동연설회에 잇따라 참석, 대의원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신당 태동...광주·전남지역 정치권 반응

### 거론 인사들 “일단 지켜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신당행 선언 이후 광주·전남지역 유력 지역정치인들의 후속 신당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당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정치인 들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이 거론된다. 천정배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양형일 전 의원, 이용섭 전 의원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당장 탈당을 선택하지 않고 당 내외 상황을 관망하면서 신당의 태생 모습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1일 야권 신당 참여 여부에 대해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생각이 없다”며 “신당 창당의 과정을 ‘관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일보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인 제안인지는 모르지만 신당 참여 제안을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전면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무망하다면 당 밖에서라도 좋은 세력이 광

범위하게 모여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 고문 측 인사로 분류돼 왔던 양형일 전 의원도 신당 참여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창현 현 광주시장의 전략공천에 반발, 탈당했던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그러나 둘은 모두 당장은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 신당 참여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선부른 이야기다.

강 전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지금도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책을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을 격정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지만 만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도 중국에서 연구에 열중하고 있어 국내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귀국할 생각 없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관망 수준을 넘지 않을 것 이란 게 이 전 의원의 주변인 전언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 신당, 野 텃밭 광주 서을 보선 공천면

### “후보 누구냐” 관심 속 치열한 선거전 예상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합류하기로 한 국민모임이 ‘신당’을 창당, 오는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해 오는 4월 보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에서 치러지는 서구 을 보궐선거는 ‘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야권의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조준성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중앙당 법률위원장인 김희중 전남대 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대비가 시작됐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조영택 서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를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결정으로 서구를 지역구 의원직을 상실하고 출마가 예상됐던 오병은 전 의원은 사실상 출

마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서구 을 보궐선거 최대 관심사는 국민모임이 신당을 창당한 뒤 어떤 후보를 서구 을에 출마시킬지 여부다. 국민모임은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중요한 일정임에 따라 관망자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 후보를 내거나 진보 개혁연맹의 특정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신당 추진위원회가 시민사회연맹의 무당파 예비 정치인을 적극 발굴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공개 또는 비공개로 모임을 갖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어서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이)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학부**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 2. 2(월)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계열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    |           | 정원내  | 정원외 |
| 인문 | 신학과       | 4    |     |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1    | 1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4    |     |
| 사범 | 유아교육과     | 3    | 1   |
| 예능 | 음악학과      | 6    | 2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신학대학원**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 2. 2(월)  
\*서류접수 마감으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모집학년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
| 2학년  | ○명(주·야) | 2학기 이상 수료 |
| 3학년  | ○명(주·야) | 4학기 이상 수료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